



독일 생태문학과 종말론

Ökologie und Apokalypse in der deutschen Literatur

저자 박현정
(Authors) Park, Hyun-Jeong

출처 [인문과학연구 41](#), 2013.8, 219-238 (20 pages)
(Source) [Journal of the humanities 41](#), 2013.8, 219-238 (20 pages)

발행처 [대구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ublisher) The Institute of the Humanities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2379709>

APA Style 박현정 (2013). 독일 생태문학과 종말론. 인문과학연구, 41, 219-238.

이용정보 고려대학교

저작권 안내 163.152.133.25

(Accessed 2016/05/16 18:39 (KST))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자료를 원저작자와의 협의 없이 무단게재 할 경우, 저작권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The copyright of all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original author(s). Nurimedia is not responsible for contents of each work. Nor does it guarantee the contents.

You might take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according to copyright and other relevant laws if you publish the contents without consultation with the original author(s).

독일 생태문학과 종말론

박 현 정(계명대학교)

I. 서론

종말에 관한 담론은 오늘날 문학과 영화, 연극, 회화, 음악, 만화, 컴퓨터게임 등 매체와 예술영역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특히 문학의 경우 ‘아포칼립스’의 모티브는 성서의 묵시록, 종말의 환타지, SF의 파국적 미래상을 차용하여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그러나 종말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과장과 왜곡, 극적인 효과는 실제 팩트와는 무관하며 오히려 텍스트 외적인 측면과 매우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가령 자연재앙과 환경파괴를 주제화하는 생태문학의 경우, 종말에 관한 수사학은 미래 사회에 대한 가설과 예언, 극적인 시나리오를 통해 불안과 공포라는 독자의 심리적 기제를 자극한다. 또한 종말신화는 과격한 정치이데올로기를 산출하거나 경제적, 상업적 에코주의를 부추기는 ‘의식산업’의 일환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본 고에서는 작가 한스 마그누스 엔첸스베르거의 종말에 관한 매체비판과 70년대 이후 전개된 독일 생태문학에 사용된 수사학적 토포스를 재고함으로써 현대 종말 담론의 성격과 문화적(경제/과학) 이데올로기적 작동방식을 연구하고자 한다.

II. 종말의 형이상학

II-1. 성서적 종말

오늘날 최후(Ende), 몰락(Untergang), 파국(Katastrophe)과 등가적 의미를 지닌 독일어 아포칼립스(Apokalypse)의 어원은 원래 라틴어의 전철 “apo: von, weg,

ent-(이탈, 분리, 소멸)”과 “kalýptein: verbergen(감추다, 은폐하다)의 합성으로서 어떤 숨겨진 사실과 진실의 “Entbergung(공개), Enthüllung(폭로), Offenbarung(누설)”을 뜻한다.¹⁾ 서양에서, 특히 기독교 문화권에서 사실의 폭로란 주로 신에 의한 계시를 의미한다. 흔히 신약을 통해 알려진 종교적 묵시록은 대홍수, 노아의 방주, 최후의 만찬, 요한 계시록과 같은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통해 전파되며 이 때 대홍수는 부활과 구원으로 이어지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즉 종말의 끝은 적그리스도의 파괴와 동시에 예루살렘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이러한 파괴와 구원의 성서적 매커니즘은 인류파멸의 ‘염세성’과 신적인 존재의 ‘비의성’을 주된 특징으로 한다. 즉 성서적 종말은 어둡고 암울한 세계가 도래할 것이라는 묵시록적 예언(7개 봉인, 7개 나팔)과 수수께끼와 같은 존재, 즉 전권을 가진 신(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혼돈된 세상이 구원되리라는 단수적 종말론의 전형이다.

II-2. 복수적 종말

성서적 종말론이 파괴와 구원이라는 큰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오늘날 형이상학적 종말의 전형적인 특성이라면, 이러한 종말론의 기제는 20세기를 지나 두 가지 새로운 특성으로 세속화된다. 첫째, 현대 종말 담론은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메시아적 구원의 의미를 생략하고 파괴만을 묘사하기 위한 부정의 수식어로 사용된다는 점이다. 즉 신의 부활과 구원 부분이 아니라 인류의 파멸과 비극적 미래를 강조하는 이른바 “꼬리 잘린 종말론 kupierte[Apokalypse]”²⁾이 사용된다. 둘째, 최근 문학과 매체, 종교, 과학, 경제에 등장하는 “종말적 음조 apokalyptische[r] Ton”³⁾는 명증한 사실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세상의 끝이 다가왔다’는 막연한 톤, 감정, 느낌, 분위기, 정서에 호소한다는 점이다. 가령 종말을 전달하는 과학담론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사실 보다는

1) Gerhard R. Kaiser, Apokalypsedrohung, Apokalypsegerede, Literatur und Apokalypse, in: Ders. (Hrsg.), Poesie der Apokalypse, Würzburg 1991, S. 11

2) Klaus Vondung, Die Apokalypse in Deutschland, München 1988, S. 12

3) Harmut Böhme, Vergangenheit und Gegenwart der Apokalypse, in: Ders., Natur und Subjekt, Frankfurt a. M. 1988, S. 380

다가올 미래에 대한 근거없는 예언으로 이루어진다. 오늘날 성서적 신의 계시는 다양한 분야의 사이비신으로 대체되었다.

III. 포스트종말 (Postapokalypse)

III-1. 종말의 변증법

비메와 같은 문화학자들은 오늘날 반- 혹은 탈-종말의 사유를 기존 종말론의 매커니즘을 극복하는 “계몽 Aufklärung”⁴⁾의 한 방식이라 정의한다. 가령 고대인들은 지진, 화산, 해일, 운성충돌 등의 자연재해를 신의 현현으로서 신비화하였고 신화적 파국 앞에 인간은 불안(Angst)과 공포(Horror)를 가진 힘없는 존재였다. 이러한 위계적, 감성적 종말론은 흔히 이성적인 사유자가 아닌 몽환자의 모습으로 그려진다. 반대로 포스트종말은 과학적 근거를 외면하는 “종말의 비이성성 Irrationalisierung der Apokalypse”⁵⁾을 극복하고 미신적 종말을 합리적으로 사유한다. 데리다는 오늘날 “인류의 멸망과 세상의 끝 Untergang der Menschheit, das Ende der Welt”⁶⁾을 다루는 엄세적 어법이 얼마나 비이성적이며 다양한 분야에 의해 이데올로기화되어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그것은 진정 끝이 아니라 역사의 끝, 계급투쟁의 끝, 철학의 끝, 신의 죽음의 끝, 종교의 끝, 기독교와 도덕의 끝, 주체의 끝, 인류의 끝, 서양의 끝, 오이디푸스의 끝, 세상의 끝이다. 내가 말하노니, 대홍수, 유황불, 피, 대지를 뒤흔드는 지진, 하늘을 나르는 헬리콥터에서 떨어진 폭탄속의 종말이다. 그것은 창녀의 종말. 또는 문학의 종말, 회화의 종말, 과거 예술의 종말, 심리분석의 종말, 대학의 종말, 남근중심주의의 종말 그리고 내가 아는 모든 것의 종말이다.⁷⁾

4) Ebd., S. 390

5) Ebd., S. 391

6) Klaus Vondung, a.a.O., S. 11

7) Jacques Derrida, Von einem neuerdings erhobenen apokalyptischen Ton in der Philosophie, in: Ders., Apokalypse, Graz/Wien 1985, S. 9-90, hier S. 55

위의 인용에서 데리다는 80년대 포스트모더니즘의 문학 현상 가운데 하나인 무수한 종말담론, 즉 “끝의 끝없음 Endloserei von Enden”⁸⁾을 신의 음성으로 패러디한다. 우리가 접하는 복수적 종말은 대체로 ‘아직 종말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증할 뿐만 아니라 선과 악의 구분조차 모호하다.

우리의 현재 종말에는 우연을 제외하곤 더 이상 선과 악의 사유에 대한 기회조차 없다. [...] 종말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종말을 기만하는 종말이란? 오직 종말 없는 종말만이 존재할 뿐이다.⁹⁾

종말의 형이상학은 문학의 메타포 외에도 영화, 연극, 음악, 회화의 “종말적인 것의 형태와 표현방식 Formen und Sprechweisen des Apokalyptischen”¹⁰⁾에도 드러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첫째, 어둡고 암울한 미래 세계에 대한 묘사와 불명확한 예언으로 이루어진 현대적 종말론이 이성에 의한 분석적 사유를 마비시키고 신빙성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전쟁과 핵위험, 지구온난화, 환경위기, 방사능 누출, 해수면 상승 등 우리는 늘 위기와 몰락의 분위기를 거론하지만 누구도 종말의 신빙성을 입증할 수 없다. 데리다의 경고처럼 친편일률적으로 다루어지는 종말과 파국의 이미지는 명확한 사유능력을 훼손하고 상상력을 일반화한다. 둘째, 이러한 종말론의 ‘신비화 Mystifikation’¹¹⁾ 전략은 정확한 사실 분석의 여지없이 이를 보는 지켜보는 사람들의 ‘공포’와 ‘불안’이라는 심리적 기제에 호소하며 마침내 어지럽고 혼돈된 세계를 정돈하고 재앙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보나파르트적인 구원자 der bonapartische Erlöser”¹²⁾를 기대하게 만든다. 심리

8) Harmut Böhme, a.a.O., S. 381

9) Jacques Derrida, a.a.O., S. 88f. “Unser Apocalypse now: Es gibt keine Chance mehr – außer dem Zufall – für ein Denken des Guten und des Bösen, [...] es gibt keine Apokalypse, es hat nie eine Apokalypse gegeben und wird keine geben, „die Apokalypse trägt“? Es gibt nur die Apokalypse ohne die Apokalypse.”(원본에 의한 강조)

10) Harmut Böhme, a.a.O., S. 382

11) Hans Magnus Enzensberger, Zwei Randbemerkungen zum Weltuntergang (1978), in: Ders., Politische Brosamen, Frankfurt a. M. 1982, S. 225–236, hier S. 232

12) Ebd.

적인 경악, 공포, 두려움이 강하게 묘사될수록 희망과 구원에 대한 소망은 더욱 간절해진다. 과도한 종말이 자극하는 환타지의 목적은 신비스러운 존재에 의한 “멋진 해방에의 소망 Wunsch nach wunderbarer Rettung”¹³⁾이다. 이러한 치유와 구원의 이데올로기는 종말의 신화화로 더욱 부각되며, 독자나 관객은 희망과 믿음의 강력한 구원자를 더욱 동경하게 된다.

멀리보면 종말은 파국의 형이상학도, 지식인을 위한 맛있는 저녁만찬도 아니다. (...) 그것은 치유의 조명 아래 재구성되는 희망의 신학이다. 종말의 어법은 권력자의 영원한 승리로 드러난 역사적 현실에 대항하고자 하는 믿음에의 강한 투자이다.

14)

마지막으로 종말론에 투사된 강한 믿음의 이면에는 낯은 세계의 붕괴와 새로운 세계의 도래를 기대하는 희망과 “동경의 표현 Ausdruck der Sehnsucht”¹⁵⁾이 존재한다. 종말론이 가진 혁명성은 인류의 암담한 미래, 특히 지구멸망의 염세적 분위기를 필수적으로 전제하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강력한 신적존재 - 혹은 이에 필적할 만한 비의적 존재 - 의 등장을 정당화한다. 오늘날 종말의 끝에 등장하는 혁명적 전사의 모습은 국가나 자본주의라는 옷을 입은 영웅의 모습이며, 파국을 극복한 그들은 부패한 세상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신적 존재로 둔갑한다. 이처럼 종말적 비전은 제현실에 대한 불만에서 출발하여 이를 위기로 진단하며, 중국엔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가 구현될 거라는 강한 유토피아적 믿음을 함축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작가 엔첸스베르거는 “파국없는 밀레니엄은 없으며 종말없는 천국은 없다 ohne Katastrophe kein Millenium [sic!], ohne Apokalypse kein Paradies”¹⁶⁾고 말한다. 요컨대 종말을 얘기하는 현시점은 언제나

13) Ebd.

14) Hartmut Böhme, a.a.O., S. 389 “Ferner ist die Apokalypse keine Metaphysik der Katastrophe – schmackhaftes Diner für Intellektuelle [...], sondern eine Theologie der Hoffnung, [...] im Licht des Heils rekonstruiert. Die apokalyptische Rede ist eine gewaltige Investition des Glaubens gegen den Augenschein des Realen, worin die Geschichte im Bild des ewigen Siegs der Gewalthaber erscheint.”

15) Ebd.

16) Hans Magnus Enzensberger, Zwei Randbemerkungen zum Weltuntergang (1978),

비종말적이며, 파국과 천국은 동전의 양면처럼 늘 함께 존재한다.

III-2. 매체와 과학담론

종말을 묘사하는 매체의 소음을 비판하는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자본주의의 경제와 결합된 상업적 종말론은 무력감과 고립을 부추기면서 권력지향의 정치적 목적이나 신개발의 정책적 이슈로 호도한다. 이러한 “매체의 조작 *Medien der Manipulation*”¹⁷⁾에 관하여 엔첸스베르거는 독일 한 주간지에서 위기, 재앙현상과 관련된 매체담론을 비판적으로 성찰한다.

매체는 늘 요란스럽다. 신문의 머릿기사는 굵을수록 더 나오니까. 그 중 최고의 머릿기사는 종말, 세기전환, 멸망이다. 언론인들은 그것에 군침을 흘린다. [중략] 볼리비아에서 티벳까지 전 지구 곳곳에서 만나는 독일인들은 그들이 광대의 천국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가령 경제성장이 제로선 이하로 내려가면 마치 세상의 종말이 다가온 것처럼 당혹해하거나 격분해한다. ¹⁸⁾

2008년 미국발 리먼브라더스 경제위기에 즈음하여 전 세계에 번져갔던 경제 붕괴설에 대하여 엔첸스베르거가 흥미로운 인문학적 위기관리론을 제시하면서 가장 먼저 진단한 것은 자본주의 경제의 ‘패닉이론’이다. 즉 자본주의적 경제는 본질적으로 “붐과 크래쉬, 광기와 패닉의 순환 구조”라는 운영체계를 가지며 대중의 심리적 “과욕과 불안”¹⁹⁾을 이용한다.

a.a.O., S. 225

17) Ebd., S. 231

18) Hans Magnus Enzensberger, Phantastischer Gedächtnisverlust, in: Der Spiegel, 45/2008 (vom 03.11.2008), S. 76–78, hier S. 77 “Am schrillsten äußern sich, wie immer, die Medien, weil sie Schlagzeilen brauchen, je dicker, desto besser – und die beste Schlagzeile ist die Apokalypse: Zeitenwende, Untergang – da läuft doch dem Journalisten das Wasser im Mund zusammen. [...] Sonderbar, dass die Deutschen, die man in jedem Winkel der Erde, von Bolivien bis Tibet, antrifft, nicht einsehen wollen, dass sie nach wie vor in einem Narrenparadies leben. Sie sind verdutzt oder empört, wenn das Wirtschaftswachstum unter die Nulllinie rutscht, als wäre das Weltende nahe.”

19) Ebd., S. 76 “Zyklen von Boom und Crash, von Größenwahn und Panik. Vor kurzem regierte noch die Gier. Jetzt herrscht die Angst. Niemand weiß, wie lange ein solcher Zyklus am Ende dauert.”

지난 세기 70-80년대는 마치 우울증이 지배한 듯 보인다. 도처에서 몰락의 시나리오가 실험되어졌다. 봉쇄와 갈등으로 이루어진 냉전체제는 국제정치를 마비시켰고 여러 형태의 환경재난이 나타났다. 로마클럽 보고서는 모든 유한 자원이 조만간 고갈될거라 예고했고 핵겨울에 관해 모두들 떠들었다. 종말의 분위기는 할리우드 영화나 TV에서만 퍼져나간 것은 아니었다. 분명 서구사회는 너무 때 이른 몰락을 맞이하려 했다.²⁰⁾

사실 오늘날 매체와 상업의 이데올로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생태담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속가능성 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생태학의 기본주제는 자연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관찰, 인간과 자연의 새로운 관계설정을 전제로 한다. 매체와 더불어 최근 자연과학담론의 또 다른 문제는 기본적인 생태학의 주제를 넘어서서 상업, 정치, 경제담론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가령 환경위기의 해결책으로 가장 명확하고 객관적인 정보와 데이터를 전달해야 할 과학담론이 매체적 특성을 통해 개인의 정서와 감정을 자극하고 불신과 패닉을 조장함으로써 가장 비과학적 담론으로 변질된다. 1972년 발표 당시 센세이션을 일으킨 로마클럽보고서 『성장의 한계 The Limits to Growth, 1972/ Beyond the Limits 1993』는 할리우드 영화만큼이나 종말론을 구체적으로 과학담론화했으며 2100년이면 지구가 과멸할 거라는 몰락의 시나리오를 통해 미래과학을 구체화했다. 결국 오늘날 사후세계에 관해 설교를 하는 사람은 교회 신부님이 아니라 과학자이며²¹⁾ 미래를 예언하는 것은 크리스탈공이 아니라 컴퓨터의 모니터가 되었다.²²⁾

20) Hans Magnus Enzensberger, Putschisten im Labor, Über die neueste Revolution in den Wissenschaften (zuerst im Spiegel 23/2001), in: Ders., Die Elixiere der Wissenschaft, Frankfurt a. M. 2004, S. 160–178, hier S. 160 “In den siebziger und achtziger Jahren des vergangenen Jahrhunderts schien die Depression zu überwiegen. Überall wurden Szenarien des Untergangs ausprobiert. Der Kalte Krieg mit seinen Blockaden und Stellvertreterkonflikten hatte zur Lähmung der Weltpolitik geführt. Umweltkatastrophen aller Art zeichnen sich ab. Der Club of Rome prophezeite die Erschöpfung aller endlichen Ressourcen in kürzester Zeit. Vom nuklearen Winter war die Rede. Apokalyptisches Stimmungen breiteten sich nicht nur auf der Leinwand des Hollywoodfilms und auf dem Bildschirm aus. Offenbar hatten sich die westlichen Gesellschaften zu früh auf den Untergang gefreut.”

21) Vgl. ebd., S. 162 “[...] von der Unsterblichkeit sprechen nicht mehr die Priester, sondern die Forscher”

IV. 종말의 수사학: 생태문학

종말론이 가진 부정의 수사학은 생태문학에서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다. 독일에서 60년대 말 70년대 초 종말론의 출현은 당시 시대의 요청이던 평화, 여성운동, 생태운동 등의 ‘신 사회운동’과 맥을 함께 한다. 이 때 새롭게 등장한 “생태주의 Ökologismus/Ecologism”²³⁾와 “파국주의 Katastrophismus”²⁴⁾는 심층 생태학의 컨셉인 상생과 공생의 이념을 차용하여 기존의 보수적 위계질서를 비판하고 그들의 행동주의적 신념과 이해관계를 관철하려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이다. 이른바 ‘에코 프릭 eco freak’이라 불리우던 사람들과 녹색당을 대표하던 신좌파 지식인들의 행동중심적 성향은 70년대 서독의 이념적 소용돌이 속에서 정치적 생태주의를 양산한다. 80년대 소위 ‘종말문학 Endzeitliteratur’의 수사학과 메타포 역시 ‘에코 스릴러 Öko-Thriller’라는 장르를 통해 점차 저널리즘적 과장과 유흥성에 일조하였다. 우리에게 동화작가로 더 친숙한 미하엘 엔테가 당시 파괴되어가는 자연의 모습을 신문에 기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까이 서 있는 서로 다른 나무들의 우듬지는 푸르렀지만 그 뒤에 놓인 나뭇잎들은 자신의 색깔을 잃어가는 듯 했다. 그것은 회색이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보면 특이한 형태로 투명하고, 안개가 자욱한, 더 정확히 표현하면 그것들은 비현실적인 것이 되어갔다. 그 뒤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았다. 정말 아무것도.²⁵⁾

생태문학은 대중의 환경의식을 고취하고 시대적 책임을 묻는 역할을 수행한

22) Vgl. Josef H. Reichholf, Die falschen Propheten. Unsere Lust an Katastrophen, Berlin 2003 (2. Aufl.), S. 8f.

23) Jörg von Uthmann, Die Sehnsucht nach dem Paradies. Zeitgemäße Anmerkungen zur deutschen Neurose, Stuttgart 1986, S. 55

24) Michael Schneider, Nur tote Fische schwimmen mit dem Strom. Essays. Aphorismen. Polemiken, Köln 1984, S. 76 und Heinz-Peter Preußner, Reisen an das Ende der Welt. Bilder des Katastrophismus in der neueren Österreichischen Literatur. Bachmann-Handke-Ransmayr, in: 1945-1995. Fünfzig Jahren deutschsprachige Literatur in Aspekten (Amsterdamer Beiträge Bd. 38/39), hrsg. v. Gerhard P. Knapp/Gerd Labrousse, Amsterdam 1995, S. 369

25) FAZ-Magazin vom 7. Januar 1983, zit. nach Reinhard Kaiser, Weltende, in: Kursbuch 74, 1983, S. 2

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구환경과 관련한 위기담론은 대부분 과학적으로 명확한 사실에 근거하기 보다는 과도한 상상력과 부정적 결말을 강조하는 ‘에코언술 ecospeak’을 사용한다.²⁶⁾ 에코언술의 작동방식은 위기에 대한 원인의 분석이나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대중의 심리와 정서적 반응에 의존한다. 문학의 메타포, 과학, 정치, 미디어의 보도 역시 이러한 종말의 수사학을 통하여 진실을 과대포장하고 왜곡한다. 이렇게 생성된 이데올로기로서의 문학적 ‘생태주의’는 의도된 목적과 이해관계를 지향함으로써 정확한 생태위기의 진단과 문제해결을 방해한다. 그래서 기존의 종말적 내러티브가 추구하는 상상력의 확장과 환경위기에 관한 메시지는 대중을 기만하고 그들을 현실문제로부터 외면하게 하는 정반대의 결론을 낳기도 한다. 미국식 생태주의는 이러한 종말론의 편향성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가령 영미권 생태문학의 효시라 불리우는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1962)은 대중의 관심을 성공적으로 이끈 환경저술이자 미국 환경정책을 변화시킨 대표적인 문학사례이다. 그것은 저자 자신이 생물학자였고 이에 독자들은 책에 묘사된 내용이 과학적 사실에 기인한다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그가 사용한 ‘황무지’, ‘새들의 죽음’, ‘지구의 종말’과 같은 부정의 언어는 원인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아닌 가능한 현실에 대한 쇼크와 자극을 목표로 한다. 지상에 아무것도 남지 않으리라는 염세적인 음조의 작품들은 맥키벤의 『자연의 종말 Das Ende der Natur』(Bill McKibben, 1989)과 케롤린 머천드의 『자연의 죽음 Der Tod der Natur』(Carolyn Merchant, 1987), 마리오 짐멜의 『종달새가 우는 마지막 봄 Im Frühling singt zum letzten Mal die Lerche』(Mario Simmel, 1990), 엘 고어의 『불편한 진실 The inconvenient Truth』(Al Gore, 2006)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 이들의 지구온난화와 인류의 멸망, 생물의 멸종, 새로운 빙하기의 출현 등과 같은 최악의 미래시나리오는 성서의 요한계시록과 같은 비극적 종말을 연상시킨다.

26) 신두호, 환경위기 담론으로서의 종말론적 수사학 재고, 실린 곳: 문학과 환경 12권 1호, 86쪽 참조

IV-1. 파국의 메타포

흔히 파국, 재앙, 참사를 의미하는 단어 ‘Katastrophe’는 원래 그리스어 $\kappa α τ ά$ $κατά$ (아래로 *herab-, nieder-*)와 $σ τ ρ έ φ ε ι ν$ *stréphein* (돌리다 *wenden*)의 합성어인 $\kappa α τ α σ τ ρ ο φ ή$ 를 어원으로 하며 이는 전환 혹은 전도 (*Umkehr, Umwendung, Peripetie*)를 의미한다. 이러한 재앙의 원뜻은 오늘날 일반적으로 파멸로의 전환 (*Wendung zum Niedergang*)을 상징하지만 일부 정치나 경제에서는 실패가 아닌 기존 체계의 붕괴를 의미한다.²⁷⁾ 문학에서 상징화된 자연재해나 재앙, 파국의 형상화는 (무)의식적으로 전수된 문화체계이다. 서독의 80년대 ‘종말문학’은 이러한 파국의 이미지나 메타포, 알레고리, 수사학을 주로 애용한다. 동독 시인 귄터 쿠네르트(*Günter Kerner*)는 대표적인 생태목시록 예찬론자이다. 아래 그의 시 「대홍수 *Vor der Sintflut*」를 살펴보자.

나는 물었지 / 이것이 작별이냐고 / 아니면 종말의 / 신호냐고 // 지구가 가라앉으면 / 지평선 뒤로 /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겠지²⁸⁾

쿠네르트와 달리, 칼 크라우스와 엔첸스베르거 같은 “종말의 거부자 *Apokalypse-Feinde*”²⁹⁾는 목시록적 경고가 생태적 인식을 자극하고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이들의 과장된 문학적 토포스와 정서적 왜곡은

27) Vgl. Reinhold Grimm, Das Messer im Rücken. Utopisch-Dystopische Bildlichkeit bei Hans Magnus Enzensberger (1982), in: Ders., Texturen, Essays und anderes zu Hans Magnus Enzensberger, New York 1984, S. 148–168, hier S. 151f. (Hervorhebung im Original). “Katastrophe muß dabei natürlich im griechischen Wortsinn verstanden werden, als Umkehr, Umwendung, Peripetie, Scheitern ebenso natürlich nicht so sehr als ein praktisch-politisches Mißlingen, sondern als das Ungültigwerden eines ganzen Systems der politischen Philosophie, will sagen als der Zusammenbruch.”

28) Günter Kerner, Vor der Sintflut, in: Ders., Abtötungsverfahren, München/Wien, 1980, S. 67 “In den Abendbäumen/Gebilde aus purer Luft/langgezogen wie Rufe/aus weiter Ferne/und ich fragte mich/ob das der Abschied sei/oder sonst ein Zeichen/des Endes//Denn die Erde versinkt/ hinter ihrem Horizont/nichts geht mehr auf/das ist klar/und es bleibt/ein fahriger Widerschein/von uns allen/ noch eine Weile/bestehen.”

29) Klaus Vondung, a.a.O., S. 429

반대한다. 상상력과 왜곡, 감정의 과장은 생태문학의 전형적인 쇼크전략이지만 엔첸스베르거와 같은 이성주의자들에게 종말이란 생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코 합리적 구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종말론을 옹호하는 생태학자들이 일종의 과격한 수사학을 통해 생태적 현실을 경고, 도덕적 당위성과 환경의식에의 호소, 연대의식을 강화하려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반면, 엔첸스베르거와 같은 종말론의 비판자는 종말이 사실에 기인하지 않고 막연한 현실을 심정적으로 자극하여 어떠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지한다. 결국 생태적 관점에서 종말론은 기후변화와 환경개선에 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극과 쇼크, 불안의 심리적 작용으로 인해 참담한 결말에 대한 무기력 혹은 외면을 양산할 뿐이다.

IV-2. 새로운 시작

현대문학에서 ‘포스트종말’의 묘사는 파국과 구원의 정전식 종말이 아니라 가능한 한 다양한 종말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종말은 어둡고 암울한 비극 대신 유희적이고 평온한 종말일 수 있다. 엔첸스베르거의 문학은 종래의 종말적 수사학을 희극적으로 승화함으로써 문화적 이데올로기인 생태주의로부터 탈이념화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우리는 지하실에 모여
영뚱한 색인목록이 놓여진 헤겔집회로 모여든다
그리곤 크리스탈공과 점성술을 풀어놓고
일에 몰두한다.

[중략] 우리가 궁금한 건

실제로 일어난 이 일이 과연 얼마나 실제적인가 하는 것이다. 30)

1978년에 발간된 시집 『타이타닉 호의 침몰. 희극』은 총 33편의 서사시가

30) Hans Magnus Enzensberger, Der Untergang der Titanic. Eine Komödie, Frankfurt a. M. 1978, S. 93 (이하 UT, 쪽수로 표기) “Im Keller versammeln wir uns,/ wo die Karteileichen liegen, zum Hegelkongreß,/packen unsre Kristallkugeln und Horoskope aus / und machen uns an die Arbeit./[...] wir fragen: / Wie wirklich ist das, was wirklich ist?”

하나의 역사적 사실을 다룬다. 엔첸스베르거는 20세기 초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영국 호화 유람선 타이타닉호가 1912년 4월 14일 빙산에 부딪쳐 1500명 이상의 승객이 목숨을 잃었던 비극적인 참사를 유희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다.³¹⁾ 의도적으로 삽입된 부제 ‘희극 (Eine Komödie)’이 암시하듯 타이타닉 시는 흔히 알려진 대로 역사적 사실을 직접적으로 묘사한 시라기 보다는 작가 자신의 자서전적인 배경과 인식이론, 정치 및 시학적 반성, 사회비판과 시대정신을 풍자적으로 변용한다. 형식이나 문체면에서 매우 복잡한 텍스트구조로 이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작가의 전기 시집에 해당되는 『늑대의 변명 verteidigung der wölfe』(1957), 『방언 landessprache』(1960), 『점자책 blindenschrift』(1964)과는 다른 문체적, 주제적 경향을 보여준다. 과거 엔첸스베르거를 비판했었던 문예 비평가들도 그의 유희적이고 미학적인 “포스트혁명의 상태 postrevolutionäre[n] Lage”³²⁾로의 전환을 극찬했다. 60년대까지만 해도 아도르노의 영향 아래서 비판적 염세주의 성격이 강했던 그의 작품들은 타이타닉 시집을 정점으로 “지루해져만 가는 좌파적 터부에 염증을 느낀”³³⁾ 작품으로 변모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의 이면에 그의 작품은 당시 환경문제에 관한 이데올로기 비판 뿐만 아니라 기존의 예술 및 문화체계에 대항하는 메타시학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다.

68 학생소요의 실패 이후에도 서독은 여전히 첨예한 이데올로기 분쟁에 휩싸였고, 서독의 나토에 의한 핵무장에 반대하던 신좌파 지식인들에 의해 염세적 종말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좌/우파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종말론에 관한 열광, 흥분, 근심이 동시에 존재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배태된 좌파적 정치적 이데올로기는 엔첸스베르거의 표현대로 “생태라는

31) Vgl. Frank Dietschreit/Barbara Heinze-Dietschreit, Hans Magnus Enzensberger, Stuttgart 1986, S. 121 엔첸스베르거가 이 작품을 집필한 시기는 1968년과 1969년 쿠바에 체류했던 시기였으나 초판이 우편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그의 원고가 분실된 8년 뒤 베를린에서 재집필, 발간되었다.

32) Karl Heinz Bohrer, Zuschauen beim Salto mortale, in: Merkur 2/1969, S. 170-186, hier S. 183

33) Karl Heinz Bohrer, Getarnte Anarchie. Zu Hans Magnus Enzensbergers Untergang der Titanic, in: Merkur 12/1978, S. 1275-1279, hier S. 1275

새로운 의복 *neue[s] Kostüm der Ökologie*”³⁴⁾으로 장식되었다. 그는 생태적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시사적 문제를 시적으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 혁명 후 더욱 비판적으로 변해가던 좌파 동지들을 비판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가의 자기성찰은 문학적으로 승화되어 새로운 詩作을 예고한다.

[중략] 난 어쩌면 이제껏 없었던 텍스트를
새로이 쓰는 일을 즐기고 있다. 나는 이미지를 복구하고
내 자신의 작품을 위조한다. 그리곤 스스로 묻는다
타이타닉의 흡연실은 과연 어떠했을까 [중략]
실제로 어떠했을까? 내 시에서는 어떠했을까?³⁵⁾

기존의 상징과 은유에 의해 어두운 결말을 암시하던 타이타닉과는 달리 엔첸스베르거의 타이타닉은 “배이면서 동시에 배가 아닌, 다만 몰락하는 배 *Vom untergehenden Schiff, das ein Schiff und kein Schiff ist*”(UT, 54)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제 시인은 기존의 문학적 메타포와 상징체계를 오늘날 현실에 맞게 재구성하고 실제의 타이타닉호를 상상해본다. 그에게 타이타닉의 침몰은 과거 타이타닉이라는 어두운 역사의 침몰이며, 과거 종말에 관한 메타포의 몰락이다.

“실제로 아무일도 없었다.”
타이타닉의 침몰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것은 영화, 오멘, 환각일 뿐이다.³⁶⁾

타이타닉이 종말의 수사학이자 과장된 환영의 메타포로 사용되었다면 이러한 타이타닉의 침몰은 현실의 이해관계에 의해 만들어진 허구의 침몰을 의미한

34) Hans Magnus Enzensberger, Zur Kritik der politischen Ökologie (zuerst im Kursbuch 33, 1973), in: Ders., Palaver. Politische Überlegungen (1967–1973), Frankfurt a. M. 1974, S. 169–232, hier S. 196

35) UT, 26 “[...] unterhalte ich mich damit, einen Text wiederherzustellen,/ den es vielleicht nie gegeben hat. Ich restauriere Bilder,/ Ich fälsche mein eigenes Werk. Und ich frage mich,/ wie es wohl aussah im Rauchsalon der Titanic, [...] / Wie war es in Wirklichkeit? Wie war es in meinem Gedicht?”

36) UT, 91 “In Wirklichkeit ist nichts geschehen.”/Der Untergang der Titanic hat nicht stattgefunden:/Es war nur ein Film, ein Omen, eine Halluzination.

다. 엔첸스베르거의 성찰적 메타시학은 스스로의 시학을 반성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종말론으로 점철된 생태적 위기담론을 재고하고 현 상황에 걸맞는 사실적 사회문화 담론으로 환원하는 일이다. 시집 타이타닉은 이러한 점에서 단순히 어두운 역사적 사실을 기술하는 서사시가 아니라 오늘날 종말담론과 복잡하게 얽힌 정치적, 사회적, 시학적 문화체계를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신화적인 거울의 방 ein mythopoetisches Spiegelkabinett”³⁷⁾으로 이해될 수 있다.

리사본의 지진에서 타이타닉의 침몰, 전쟁과 홀로코스트의 황폐화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세상의 종말이란 실제로 무엇인가? 핵무기나 생태적 참사의 실체에 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란 무엇인가? 분명 우리는 종말론에 눈멀고, 귀먹고 병어리인 셈이다. [중략] 우리가 문학의 방주를 세우고 문학적 생태-공간과 생존의 전략을 낭만주의 반어 속에서 만들고 스스로 구원에 참여한다면, 종말론 자체는 미학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것이며 말세론 역시 오락의 일부이다.³⁸⁾

정치와 예술, 경제와 문화 전반에 확산된 종말론은 실제 종말과는 무관하며 의식적으로 고안된 문화체계에 불과하다. 기존의 종말론은 위험을 경고하는 “과학적 예언, 집단적 허구, 종파적 외침, 오락산업의 산물, 미신, 통속적 신화, 환각, 농담, 영화”³⁹⁾와 다르지 않으며, 이것은 거대한 타이타닉이라는 종말의 수사학적 메타포와 함께 침몰한다. 그래서 “결국 세상은 몰락하지 않았다. 그렇

37) Jörg Lau, Hans Magnus Enzensberger. Ein öffentliches Leben, Berlin 1999, S. 310

38) Joseph Kiermeier-Debre, „Diese Geschichte vom untergehenden Schiff, das ein Schiff und kein Schiff ist“. Hans Magnus Enzensbergers Komödie vom „Untergang des Untergangs der Titanic“, in: Apokalypse. Weltuntergangssionen in der Literatur des 20. Jahrhunderts, hrsg. v. Gunter E. Grimm/Werner Fastich/Peter Kuon, Frankfurt a. M. 1986, S. 222–245, hier S. 223 “Was sind uns in der Tat alle modernen Greuel und Untergänge vom Erdbeben von Lissabon bis zum Untergang der Titanic, die Verwüstungen der modernen Kriege und der Holocaust: was ist uns das Wissen um die Existenz der Bombe oder der ökologischen Katastrophe? Wahrlich, wir sind apokalypseblind, taub und stumm; [...] Ästhetisiert ist selbst die Apokalypse genießbar, der Untergang ein Vergnügen, und wenn wir schon Götter erweichen, so allenfalls ästhetisch, indem wir poetische Archen bauen und uns in romantischer Ironie als Schöpfer dieser poetischen Öko-Nischen und Überlebensstrategien selbst der Rettung teilhaftig werden lassen.”

39) Hans Magnus Enzensberger, Zwei Randbemerkungen zum Weltuntergang (1978), in: Ders., a.a.O., S. 225

지 않았다면 우리는 세계종말에 관한 얘기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⁴⁰⁾라는 상황보고는 과연 종말의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음을 반증한다.

V. 결론

종말의 시나리오는 신학 뿐만 아니라 전통적 문학과 예술이 선호하던 전형적 모델이다. 또한 언론과 매체에 범람하는 종말의 인플레이션은 통제불능의 환경 위기 담론과 주로 결부되어 있다. 이처럼 종말론의 오락성과 임의성은 그것이 구조화된 시대적 맥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엔첸스베르거는 지나치게 확대된 저널리즘적 위기담론을 재고하고 종말에 관한 매체비판을 시도한다. 그는 염세적 종말적 비전에 사용되는 기존 문학의 메타포가 어떻게 독자의 심리를 강하게 자극하고 새로운 위기담론을 재생산하는 지를 설명한다. 또한 데카당스의 어두운 이미지, 인류의 최후가 반드시 참담할 거라는 단수적 미래에 대해 이들 종말담론이 가지는 진정성을 비판한다. 엔첸스베르거가 자신의 탈종말적 생태사유를 미학화한 대표적 작품 중 하나로 손꼽히는 『타이타닉호의 침몰. 희극』은 명확한 근거없이 암담하고 침울한 미래를 제시하는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디스토피아가 아닌 포스트 종말론을 제시한다. 그에게 종말은 세상의 끝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암시하는 임시적 종말을 의미한다. 이러한 포스트종말에 관하여 2008년 12월 28일자 독일 <프랑크푸르트 알게마 이네 짜이퉁>신문은 “이제 종말이다! Apokalypse Jetzt!”라는 표제어를 통해 독일적 불안과 과민함을 전면에 기사화하였다.

2009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좀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상과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끔찍하고, 놀랍고, 암울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시대가 험난할 수록 예술은 호시절이듯, 모든 종말엔 시작이 내재한다.⁴¹⁾

40) Ebd., S. 230 “Schließlich ist die Welt ja nicht untergegangen (sonst könnten wir uns nicht über den Weltuntergang unterhalten)”

41) FAZ, Sonntagszeitung vom 28.12.2008, S. 19 “Wie wird 2009? Furchtbar,

종말의 끝이 반드시 암울한 디스토피아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위기와 종말을 극복하려는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한다. 이것이 엔첸스베르거가 타이타닉의 침몰 후 끊임없이 “계속 수영해나가는 *schwimme ich weiter*”(UT, 115) 의미이며 또한 문학의 위기경영방식이다. 그는 보편적 종말의 염세주의 대신 **포스트종말**의 희극적 메타포를 실험함으로써 몰락의 유희를 “창조의 유희 *eine schaffende Lust*”⁴²⁾로 전환한다. 또한 구원의 종말론을 오락과 희극적 미학으로 승화하고 있다. 왜냐하면 인류의 미래를 소재 혹은 주제화하는 예술적 힘은 바로 희극적 종말을 상상하는 작가의 새로운 창조력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주제어: 종말, 포스트종말, 파국, 생태위기, 메타포, 매체

schrecklich, schwarz, sagen die Kanzlerin und alle, die es sonst noch wissen müssten. Schlechte Zeiten sind aber meistens guter Zeiten für die Künste. Und jedem Weltende wohnt ein Anfang inne.”

42) Hans Magnus Enzensberger, *Mausoleum, Siebenunddreißig Balladen aus der Geschichte des Fortschritts*, Frankfurt a. M. 1978 (zuerst 1975), S. 90

◆ 참고 문헌

- FAZ, Sonntagszeitung vom 28.12.2008, S. 19
- Frank Dietschreit/Barbara Heinze-Dietschreit, Hans Magnus Enzensberger, Stuttgart 1986
- Gerhard R. Kaiser, Apokalypsedrohung, Apokalypsegerede, Literatur und Apokalypse, in: Ders. (Hrsg.), Poesie der Apokalypse, Würzburg 1991
- Günter Kunert, Vor der Sintflut, in: Ders., Abtötungsverfahren, München/Wien, 1980
- Hans Magnus Enzensberger, Der Untergang der Titanic. Eine Komödie, Frankfurt a. M. 1978
- Hans Magnus Enzensberger, Mausoleum, Siebenunddreißig Balladen aus der Geschichte des Fortschritts, Frankfurt a. M. 1978 (zuerst 1975)
- Hans Magnus Enzensberger, Phantastischer Gedächtnisverlust, in: Der Spiegel, 45/2008 (vom 03.11.2008), S. 76-78
- Hans Magnus Enzensberger, Putschisten im Labor, Über die neueste Revolution in den Wissenschaften (zuerst im Spiegel 23/2001), in: Ders., Die Elixiere der Wissenschaft, Frankfurt a. M. 2004, S. 160-178
- Hans Magnus Enzensberger, Zur Kritik der politischen Ökologie (zuerst im Kursbuch 33, 1973), in: Ders., Palaver. Politische Überlegungen (1967-1973), Frankfurt a. M. 1974, S. 169-232
- Hans Magnus Enzensberger, Zwei Randbemerkungen zum Weltuntergang (1978), in: Ders., Politische Brosamen, Frankfurt a. M. 1982, S. 225-236
- Harmut Böhme, Vergangenheit und Gegenwart der Apokalypse, in: Ders., Natur und Subjekt, Frankfurt a. M. 1988
- Heinz-Peter Preußner, Reisen an das Ende der Welt. Bilder des Katastrophismus in der neueren Österreichischen Literatur. Bachmann-Handke-Ransmayr, in: 1945-1995. Fünfzig Jahren deutschsprachige Literatur in Aspekten (Amsterdamer Beiträge Bd. 38/39), hrsg. v. Gerhard P. Knapp/Gerd Labrousse, Amsterdam 1995
- Jacques Derrida, Apokalypse, Graz/Wien 1985
- Jörg Lau, Hans Magnus Enzensberger. Ein öffentliches Leben, Berlin 1999
- Jörg von Uthmann, Die Sehnsucht nach dem Paradies. Zeitgemäße Anmerkungen zur deutschen Neurose, Stuttgart 1986
- Josef H. Reichholf, Die falschen Propheten. Unsere Lust an Katastrophen, Berlin 2003 (2. Aufl.)

- Joseph Kiermeier-Debre, „Diese Geschichte vom untergehenden Schiff, das ein Schiff und kein Schiff ist“. Hans Magnus Enzensbergers Komödie vom „Untergang des Untergangs der Titanic“, in: Apokalypse. Weltuntergangssionen in der Literatur des 20. Jahrhunderts, hrsg. v. Gunter E. Grimm/Werner Fastich/Peter Kuon, Frankfurt a. M. 1986, S. 222-245
- Karl Heinz Bohrer, Getarnte Anarchie. Zu Hans Magnus Enzensbergers Untergang der Titanic, in: Merkur 12/1978, S. 1275-1279
- Karl Heinz Bohrer, Zuschauen beim Salto mortale, in: Merkur 2/1969, S. 170-186
- Klaus Vondung, Die Apokalypse in Deutschland, München 1988
- Michael Schneider, Nur tote Fische schwimmen mit dem Strom. Essays. Aphorismen. Polemiken, Köln 1984
- Reinhard Kaiser, Weltende, in: Kursbuch 74, 1983
- Reinhold Grimm, Das Messer im Rücken. Utopisch-Dystopische Bildlichkeit bei Hans Magnus Enzensberger (1982), in: Ders., Texturen, Essays und anderes zu Hans Magnus Enzensberger, New York 1984, S. 148-168

◇ 논문접수: 2013년 12월 16일

◇ 논문심사: 2013년 12월 20일~2014년 01월 11일

◇ 게재결정: 2014년 01월 13일

◆ Abstract

Ökologie und Apokalypse in der deutschen Literatur

Park, Hyun-Jeong

Enzensberger hinterfragt auf poetologischer Ebene die Metapher des negativen Weltuntergangs und beschäftigt sich mit einer lustigen Schwarzkomödie *Untergang der Titanic* (1978), welcher die herkömmliche Tragödie rekonstruiert. Die literarische Metapher eines untergehenden Schiffes in diesem Gedichtband ist nicht nur ein Symbol für die absolute, universale und definitive Katastrophe des technischen Fortschritts, eine parabolische Darstellung des Weltuntergangs, sondern auch für die Krise der eigenen Hoffnung. Aber Enzensbergers Zukunftsvorstellung geht prinzipiell von der Ambivalenz der Apokalypse aus. Sie ist für ihn weder negativ noch positiv zu beurteilen. Die Inszenierung des apokalyptischen Themas, das ursprünglich vom biblischen Jüngsten Gericht entliehen und als literarischer Topos verwendet wurde, spielt bei Enzensberger ebenso wenig eine Rolle. Im Essay “Zwei Randbemerkungen über den Weltuntergang” persifliert Enzensberger beiläufig das Thema *Apokalypse* im Folgenden: “Die Apokalypse gehört zu unserem ideologischen Handgepäck. Sie ist ein Aphrodisiakum. Sie ist ein Angsttraum. Sie ist eine Ware wie jede andere”. Angesichts der zunehmenden Umweltkrise wird auch die ökologische Endzeitgerede auf der politischen und ökonomischen Ebene ideologisiert. Die meisten ökologischen Diskursen sind heutzutage stark mit politischen Interessen verbunden, dabei handelt es sich weniger um die genauere Bestandsaufnahme des Status quo. Daraus resultiert: die bisherige Apokalypse

ist im Grunde “kein Ereignis, sondern ein Text, der ein Ereignis in bestimmter Weise beschreibt und deutet”. Was das apokalyptische Krisenbewusstsein betrifft, ist der postapokalyptische Text von Enzensberger nur ein Text, der sich gegen eine metaphorische und pessimistische Apokalypse richtet.

Keywords: Apokalypse, Postapokalypse, Ökologie, Katastrophe, Metapher